

연중 제 8 주일

(출판물 보급주일)

기도서 P. 347 B해

제1독서 (호세 2, 14 15, 19-20)

제2독서 (고린 II 3, 1-6)

복 음 (마르코 2, 18-22)

# 숲 정 이

발행인	범 식 규
인쇄인	김 불 희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칼 문



## 출판물과 하느님 나라

강 덕 창 신부

언젠가 어느 아주머니와의 대화중에 “사람은 한 번이라도 본 것은 흉내를 낼 수 있어도 본 적이 없는 것은 흉내를 전혀 낼 수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 말은 체험을 한 것은 알게 해주고, 알게 된 지식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준다는 말일 것이다. 그렇다면 체험은 지식이며 능력이다. 사실 재봉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재봉사가 될 능력이 있을 것이며, 전쟁을 많이 겪어 본 사람은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알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재력이나 지력 등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는 인간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나온 발자취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누구나 나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능력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느님으로부터 태어난다. (평범한 인간이라면)

이렇게 체험은 인간에게 능력을 준다.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하느님의 나라를 많이 보고 듣고 배운 사람은 아무래도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보다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가 하느님을 직접 보고 듣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고서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신 교황님과 주교님 그리고 그리스도화 한 신부, 부제, 수도자들, 그리고 열심한 신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느님의 그림자를 체험할 수 있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곧 신앙이 생기고 성장한다.

그러나 바쁘고 복잡해진 시대에 언제나 성당에 앉아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생활과 해결을 위해서 사회와 가정에서 보내야만 한다. 이러한 조건속에서 다행히도 각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인쇄된 하느님 나라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언제 어디서나 손에 쥌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체험함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알 수 있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힘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황등 천주교회 주임신부)



## 사순절과 3.1정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금년도 사순절 메시지에서, 사순절의 의미를 「회개와 나눔의 복음적 증거 실천」이라고 말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무엇에 대해 회개하고, 누구와 무엇을 나누어야 할 것인가?

첫째로 <어떤 저지른 잘못>에 대해 참회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 더욱 참회하고 회개해야 한다. 불의와 부조리를 보고도 침묵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서 지어주신 그 인간다움을 점점 상실하게 된 것이다. 이웃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도 외면한 잘못들이 비인간화를 더욱 부채질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 진정으로 참회하고 회개해야 한다.

눈앞에 저질러지는 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그 악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보다 더 큰 범죄가 어디에 있는가? 침묵은 비겁함과 나약함에서 나오는 죄악이다.

둘째로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우리가 지닌 영신적인 풍요로움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웃과 나누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개인적으로 오른손도 모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악이 도사리고 있는 때에는 조직사도적으로 맞서야 한다. -인성회, 정의평화 위원회, 농민회, 노동청년회, 빈첸시오회 등을 통한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한 회복운동도 나눔의 하나이다. 금년은 3·1독립운동 60주년이 되는 해이고, 3·1독립정신은 잃은 것에 대한 자각운동이었고 회복운동이었다.

## 숲 정 이 산책



많이 드시요!

□79년도 사순절 메시지□

사순절에는 회개와  
나눔의 복음적 증거 실천해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친해하을 형제 여러분,

사순절이 될 때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라고 자문을 하곤 합니다. 저 무수한 형제 자매들이 전쟁과 재난에 희생당하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얼마간 단식을 한다 하여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식제(斷食齋=대제의 바뀐말)는 개인 구기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한걸음 나아가 이 전례시기를 한층 높은 차원으로도 지냈으면 하는 것이 교회의 바램입니다.

사실로 사순절은 우리에게 뜻깊은 시기여야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에 사순절은 우리 모두 회개의 시기이며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을 전례상으로 재현하려는 뜻을 온 세상에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순절의 공동체적인 표현은 개개인의 진정한 참회정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뉘우침을 길게하고 그 동기를 다져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회개(喜捨)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만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한걸음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까지도 내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복음의 착한 과부(참조: 마르코 12, 41-44)는 자기가 헌금한 것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재물이라고 여겼기에 모두 바친 것입니다. 인류의 공동유산인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을 편리와 소비라는 명목하에 낭비하는 현대 문명의 해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길은 바로 이 나눔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사순절 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 운동을 통하여 여러분이 가진 것을 덜 가진이들이나. 전혀 갖지 못한 이들과 나눔으로써 진정한 참회의 정신을 드러내도록 여러분을 격려할 것입니다.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아직도 장터에 할 일 없이 서 있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교의 사랑의 포도밭에는 할 일이 많습니다. (참조: 마태오 20, 1-7) 교회는 여러분을 이 사랑의 포도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늦기전에 감옥에 갇히고, 헐벗고, 피난은 그리스도, 굶주려 집없이 떠돌아 다니시는 그리스도를 도우십시오.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도움으로써 그들이 비인간적인 처지에서 벗어나 참다운 인간 발전을 이룩하도록 하십시오.

회개와 나눔의 복음적 증거를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축복을 보냅니다.



은퇴 신부님의 현주소

—사제양성 후원을 위한

사순절 성금운동을 시작하며

이철연 신부님...〈520〉전주시 진북동 1026-2번지 (전화 ㉠ 0909)

87세로 한국에서 최고령이시다. 사제가 되신지 58년째 연세에 비하여 건강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시다. 즐겨하시는데는 산책으로 건강유지를 하시는 것 같다. 교구에서 마련해 드린 정양소에 계신다.

김후상 신부님...〈520〉전주시 진북동 1026-2번지 (전화 없음)

85세로 사제가 되신지는 53년째이시다. 현재는 건강상태가 아주 나쁘시다. 굳이 병명을 부친다면 〈노인병〉이라고 할까? 성모병원 별실에 입원 가료중이시다. 젊으셨을 적에는 교구에 보존되어 있는 세례·견진·혼배 문서등을 잘 정리하시어 기틀을 잡아 놓으시기도 했다. 건강이 좋을 때에는 꽃가꾸기 등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즐겨하신다. 정양소에서 기거하신다.

김영구 신부님...〈520〉전주시 교동 1가 132-4번지 (전화 ㉠ 8345)

77세로 사제가 되신지는 50년째로 금년에 금경축을 맞으신다. (5월 25일) 왼쪽 다리가 나빠서 최근에는 한달 남짓 침도 맞으셨는데 별무 효과라서 지금은 맥에서 요양중이시다. 그래도 노익장을 보여주셔서 가끔 중경이에 타자하신 육고를 보내주신다. 뿐만아니라 경향잡지나 가톨릭시보에도 자주 글을 쓰신다. 은퇴하신 뒤에는 소장하시던 도서를 해성학교에 기증하시기도 했다.

서정수 신부님...〈510-81〉익산군 황동면 울촌리 185번지 〈아가페 농장〉(전화 황동 220)

70세로 사제가 되신지는 44년째이시다. 은퇴하신 신부님 가운데는 가장 건강하시다. 황동에 농장을 차리시고 지금도 나무, 꽃, 채소등을 재배하신다. 아마 건강유지의 비법은 갖가지 채소를 즐기는데 있지않나 싶다.

오기순 신부님...〈520〉전주시 진북동 1026-1번지 (전화 ㉠ 9495)

69세로 사제가 되신지는 38년째이시다. 은퇴는 하셨지만 지금도 은퇴신부님을 대표해서 교구의 제반 문제들 협의하는 참사회의 일원으로 수고하신다. 여러권의 책을 쓰신 신부님이시다. 형제분이 모두 사제의 길을 걸으시어, 형님은 서울대교구에 계시는 오기선 신부님이시다.

□전주교구에는 위와 같이 다섯분의 은퇴신부님이 계신다. 그간 우리들은 그분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가? 사제양성 후원사업은 사제성소의 개발과 은퇴신부님들을 돕자는 운동이다. 사순절동안 이 운동에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하자. 백의 하얀 토끼는...?

□건강이 나쁘시어 휴양하고 계시는 박성운 신부님의 주소는 〈520〉전주시 덕진동 2가167-50 (전화㉠4096)

□실계·갈리 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향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에 희소식!!!

신원 건축 연구소

1 급 건축사  
김 철 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빛과 소금이 되시오! (교리교사출신 우대)

4·5급 공무원(주·야간)

〈행정·검찰·세무·경찰·3사 은행반〉

이리역전 신탁은행 3·4층(☎ 5943·8629)

이리경문학원

원장 한 정 상



# 노풍피해 정당하게 보상하라(요약)

「노풍피해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당국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정한 노풍피해 보상액은 1월24일 현재 전체 피해액 1천3백82억원의 19.2%인 2백65억원에 불과한데다, 70%이상의 피해농가에 대해 무상으로 공급키로한 정부양곡도 22만여석에 불과, 전체 피해량의 10분의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고(東亞 1. 24) 곳곳에서 피해 농민들의 “영터리 조사”와 불공평한 피해보상”에 대한 집단 항의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

본회 조사에 의하면 노풍을 재배하게된 동기가 대부분 행정력을 동원하여 정부가 적극 권장하거나 도로본, 노풍단지 경우에서처럼 반 강제적으로 재배를 강요한 때문이었으며, 직접적인 강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지시, 교육, 매스컴을 통한 과대 선전이나 적극 장려를 함으로써 간접적인 강제라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 또한 마땅히 권장당국에게 있다.

피해조사 과정에서 당국은 노풍피해에 책임을 느끼고 정확하고 공평한 조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자세가 아니라, 농민의 불만을 무마시켜 보려는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농민이 피해 조사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농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채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조사보고 됨으로써 농민의 불만과 의혹을 사고 있고, 피해 조사에서 아예 누락되었거나 실제 피해보다 과소평가 됨으로써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농민들이 많았다. 다음으로 피해보상이 피해액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간접적이다. 직접적인 보상은 피해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혼합곡 22만 3천여석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영농자금 상환연기, 학비감면, 농지세, 수세감면, 취로사업등 간접적인 방법이다.

그나마 보상대책이 늦었고 보상과정에서 혼신을 빚는 바람에 많은 농가가 영농자금을 고리채를 내어 상환했거나, 농지세, 수세를 납부해 버림으로써 보상의 혜택에서 제외되었다.

지금 노풍피해 농민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아서 생계 대책이 마련되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당국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다. 벌써 곳곳에서 기다리다 지친 농민들의 불만이 노골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다음과 같은 대책으로 당면한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추후한다.

- ① 잘못된 피해조사를 보상의 기준으로 고수할 것이 아니라 누락되었거나, 과소 평가되어 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재 실시하거나 재 조정할 것.
- ② 평년작에 대한 피해량을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보상방법으로 조속히 보상할 것.
- ③ 보상시기가 늦어져 독촉을 못이겨 상환한 영농자금을 환불하고 납부한 농지세, 수세를 감면 조치할 것.
- ④ 농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존중하여 강제행정에 의한 농민의 인권 침해나 재산피해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상할 것이며, 품종 선택권을 농민에게 돌려 줄 것.

1979년 2월

한국 가톨릭 농민회

## 요심이 (291) 김병오

10대국회의원님! 의원임기는몇년이...  
현행6년제가 좋지!

그이유는?  
선거운동이 큰부담이 되니까...

그렇다면 임기가 100년쯤이 좋겠군요  
임기중에 죽으면 어떤 한계?

나머지 임기는 저세상에 가서 하면 되지않소?  
오우~ 굳-아이디어!

교우들의 전당

### 스타 사진관

전주시 교사동(동아여관) 앞

전화 6094

◆경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터·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금·은·보석·시계

교우들의 연말 연시 선물은

### 황 시 계 점 으 로

황 의 선(아오스딩)

□전주시 서노송동 646 옥교열  
☎ 3252

표구, 서화, 병풍, 수예, 방석, 보료

### 문 화 양 행

오 중 원(아오스딩)

팔달로 주택은행 맞은편 3170  
☆교우님들 자주 들리세요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칠·카메라 대여 DP&E

### 전 주 광 고 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1585  
◎감초당 약국 앞

□여성 여러분에게  
멋을 선사합니다□

### 파 티 마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아)

전주시 중앙동 3가 28번지  
(구라파 제과점 옆)  
전화 6219

###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사순절입니다...2월 28일은 **재의 수요일**(금육과 단식)  
※ 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은 금육, 재의 수요일과 예수 수난 성금요일(4월 13일)은 단식과 금육의 날.
- 오늘은 출판물 보급(出版物 普及)주일**
- 1. 제 6차 여성 꾸르실로...선배 꾸르실리스타의 참여와 팔랑카 부탁드립니다
- ① 마나나파...27일<화> 새벽 4시 반, ② 폐회식...27일<화> 오후 6시
- 2. 인성회 위원 연수회...3월 3일<토> 11시-오후 4시, 가톨릭센터  
※ 각 분당 신부님과 사도회장님 및 위촉받은 위원의 빠짐없는 참석 바랍니다
- 3. “노풍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의식개발 교육 및 기도회**...2월 26일<월> 오후 3시, 임실성당  
※ 관심있으신 교형자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4. 제 2 지구 **교리교사회**...오늘 12시, 둔율동 성당
- 3·1절 기도회...3월 1일<목> 오후 6시, 서울 명동성당, 강론...김수환 추기경
- 3·1절 기념 월요기도회...3월 5일<월> 오후 7시 반, 가톨릭센터
- 운장학원**-무로 중학과정-신입생 모집...문의처: 예수병원 뒤 운장학원이나 전화 ③ 3980
- ① 접수마감...3월 1일 ② 자격...국민학교 졸업자로 나이 제한 없음
- 숲정이 편집실 전화놀이 성금, 감사합니다**  
덕진 전갑관...(미주 지역) 3천원, 정음 강인찬신부...5천원, 정음 등천공소 김정수...2천원, 제 1차 사도회 임원연수회 참가자들...35,800원, 제 1차 공소회장 연수회참가자들...26,000원, 주현동 장원태...5,000원

#### (중앙)

전화 ③ 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정태현  
사도 회장 이복석

26일-중앙동(홍마리아), 27일-고사동 2반(박엘리사벳), 28일-고사동 1반(이다시안나)

8. **애령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지난주 불헌금**: 209,405원

1. 재의 수요일: 28일<수> 단식과 금육일
  2. 어머니: 1일<목> 오전 10시
  3. 성실부녀회: 2일<금> 어머니 미사후
  4. 십자가의 길: 매<금> 어머니미사 전과 저녁미사 후
  5. 중·고등학생 정기총회: 2월25일 오후 2시<월> 강당
  6. 중·고등학생 교리 주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후 6시
  7. 교무금: 신입 안하신분 신입하여 주세요
  8. 축! 은혜: 신랑-이방지거(중주), 신부-행라디나(정희) 오전 11시30분
- 지난주 불헌금**: 217,091원

#### (서학동)

전화 ③ 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1. **애령주일**: 10시미사 후 기도 있음
  2. **재의 수요일**: 단식·금육 (오후 2시미사, 28일)
  3. **성령세미나**: 5주간 28일 오후 2시부터
  4. **분당신부님 영명**: 3월 4일 10시미사후 축하식
  5. **중·고생 임원**: 미하부-유춘자·최남희, 섭외부-이명숙·이채연, 학습부-이남희·강정희
  6. **성지가지 회수**: 2월 27일까지
- 지난주 불헌금**: 53,395원

#### (노송동)

전화 ③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김성복

1. 축! 환영 분당신부님 김정원, 박중신신부님의 분당 부임을 축하합니다
  2. 사도회 월례회: 오늘 저녁미사 후
  3. 혈제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4.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반드사 교무금은 분납제로 납부합니다
  5. **전신부님·수사님·수녀님 주스안배**  
전신부님: 620 진주시 철암동 성프란치스코 수도원  
황수사님: 606 부산시 영도구 동래동 천주교회  
수녀님들: 150-06 서울 영등포구 가리봉동 프란치스코 수녀원
- 지난주 불헌금**: 119,191원

#### (숲정이)

전화 ③ 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숲정이 신협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조합원 참석 바람)
  2. **요안나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밀린 회비 청산해 주세요
  3. **첫영성체 교리에** 많이 보내주세요
  4. **유치원 면담일**: 2월 26일 오전 10시
  5. **누구나 부녀회 월례회**: 3월 3일
  6. **사도회 월례회**: 3월 4일
- 지난주 불헌금**: 134,505원

#### (덕진)

전화 ③ 2182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석종유  
사도 회장 유제상

1. **부녀회 월례회**: 25일 공식미사 후
  2. **예비자 교리시작** 일요일 오전 11시 <수> 저녁 7시 30분
  3. **성지가지 반납하세요**
  4. **재의 수요일**(28): 오전 6시30분·오후 7시30분 미사 사순절동안 미사후 성로신공에 많은 참석 바람
  5. **교무금 미신입자 빨리** 신입하세요
  6. **사도회 월례회**: 3월 4일(일원제)는 꼭 참석하세요)
- 지난주 불헌금**: 26,350원 **교무금**: 132,955원

#### (전동)

전화 ③ 3222

주임 신부 김병영  
보좌 신부 김기석  
사도 회장 유성중

1. **글라라 혈제회**: 오후 1시 30분
  2. **주일학교 졸업식**: 2월 25일<일> 오후 2시미사 후, 졸업 축하미사: 10시미사
  3. **주일학교 학생모집**: 매주 2시미사 후 접수
  4. **성지가지 반납하여** 주세요
  5. **예비자 교리**: 주일학생-9시미사 후 일반-10시미사 후, 직장인-수·목 저녁 7시 30분
  6. **교무금 월별 납입을** 바랍니다
- 지난주 불헌금**: 189,475원 **교무금**: 194,900원

#### (복자)

전화 ③ 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필  
사도 회장 조성호

1. 3월은 **성요셉 성월**
2. **재의 수요일**: 2월 28일 금육·단식
3. **성령세미나**: 3월 1~3일, 8~10일 실시 60명 선착순 마감, 회비: 1,000원
4. **학생미사 실시**: 매주일 9시30분, 미사후 교리 공식미사-10시 30분
5. **첫철례** 7: 3일 저녁미사 후 성체강복(7시미사)
6.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7. **가정방문 및 반미사** 1~5시 가정방문, 저녁 8시30분미사,

#### (파티마)

전화 ③ 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1. **재의 수요일 행사**: 28일<수> 저녁 7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라”
  2. **국민학생 교리반 졸업식**: 오후 1시미사 축하합니다
  3. **국민학교 졸업생 특별교리** 19일~24일까지 마쳤습니다
  4. **유아세례**: 오늘 공식미사 후
  5. **병자방문**: 3월 4일 아프신 분이 계시면 분당으로 연락해 주세요
- 지난주 불헌금**: 53,856원
- ※ **파티마 유치원 개원**: 기도해 주세요

# 참 회 전례

## 인사의 말씀 (사제)

친애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사순절 기간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하여 이 기간동안 수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묵상하며 그동안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과 허물을 반성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모인 것입니다.

사순절은 영광스럽고 기쁨에 찬 부활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반성하고 새로히 신앙을 가다듬으로써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이 생소하고 낯설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의 때를 모두 씻어 버리는 회개와 반성의 마음을 가다듬는 뜻으로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덧붙일 말씀은 이 예식을 참여함으로써 고백성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예식을 통하여 마음을 가다듬으로써 더 훌륭한 고백성사를 볼 수 있는 준비를 갖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성가 “나는 굳이 믿사오리”를 일절만 부르십시오.

### 성가 23 「나는 굳이 믿사오리」 1절

**성경말씀** : 이제 모두 자리에 앉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마태오 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천천히 또박 또박 낭독할 것)

**묵상** :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뜻으로 잠시동안 묵상을 합시다.

**말씀** :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알아주고 내가 받는 고통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랐으나 너희는 나를 모르는체 하였다.

—나는 이렇게 너희의 사랑을 목마르게 기다렸으나 너희는 나에게 관심도, 이해도, 동정도, 감사도 하지 않았다.

—나는 가난한 집의 아기로 태어나 추위와 배고픔에 떨고 있으나, 너희는 너희 자식만 생각했지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집이 가난하여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으나,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가난한 우리 부모님을 돕기 위하여 어린 나이임에도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나, 너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는 귀가 멀고 병어리가 되었으며, 앞을 보지도 못하는 소경,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린이가 되었으나, 너희와 너희 자식들은 나를 돌아보지도 않았으며 심지어는 놀리고 웃음꺼리로 만들었다.

—우리 부모가 나환자였을 때, 너희는 나를 문둥이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하였으며 피하기만 하였다.

—나는 낡자마자 길거리에 버려졌으나 너희는 나를 외면하였다.

—나는 고아가 되었고 길거리를 헤메었으나 너희는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적은 임금을 받고 공장에서 쉼 시간도 없이 파로에 시달렸으나, 적당한 보수는 커녕 사람대접도 해주지 않았다.

—나는 쓰러져가는 판잣집에서 살았으나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는 나를 그대로 버려 두었다.

—내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너희는 너희 배만 생각했다.

—내가 입을 옷이 없었지만 너희는 험 옷가지 하나도 내게 주지 않았다.

—나는 장난감 하나도 갖지 못했으나, 너희는 너희 자식들에게만 장난감을 사줄 줄 알았지 쓰다 버린 장난감 하나 내게 주지 않았다.

—내가 먹을 물도, 씻을 물도 없었을 때 너희는 함부로 물을 낭비했다.

—나는 누워 잘 방 한칸이 없었으나, 너희는 몇 채씩 집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농사지을 땅이 없어 네 땅을 빌려 소작을 했으나 너는 소작료만 독촉하였다.

—나는 일년 내내 죽도록 일해 농사를 지었으나 너희는 이것을 싼 값으로 사갔다.

—내가 너희 본당을 찾았을 때 아무도 내게 인사를 하거나, 웃음으로 맞이하거나 말을 부치지도 또한 친절하지도 않았다.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을 때 너희는 비겁하게 나를 모른다고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 했을 때 너희는 내게 물을 것이다.

“주님, 당신이 언제 가난한 집 아기가 되었으며 굶주리고 추위에 떨며, 공부도 못하고 공장에서 일 하셨으며 언제 병어리 귀머거리셨으며, 장님, 문둥이 자식, 고아가 되셨으며 판잣집에 사시고, 농사를 지으셨으며, 또 언제 우리 본당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 보잘것 없고 불쌍한 사람이 바로 나다. 이런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했지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았으며, 나를 사랑한다고만 했지 내 곁에 있는 이웃은 거들며 보지도 않지 않았느냐.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시 침묵)

## 기 도(사제)

우리는 이제 하느님 앞에서 또한 우리 모든 형제와 함께 서로 옳지 못했던 우리의 행실에 대하여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하고 용서를 청합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손을 잡고 “주님과 모든 형제들은 나를 용서하소서”하고 받으시다.

선 도: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도, 이해하려고도, 바라려고도, 감사하지도 못했사오니

모 두: 주님과 모든 형제들은 나를 용서하소서.

선 도: 우리는 주님을 입으로만 사랑하노라 했지 실제로 충분히 실행치 못했사오니

모 두: 주님과 모든 형제들은 나를 용서하소서.

선 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는 모든 이들에게 관심도, 이해도, 동정도, 사랑도 하지 못했사오니

모 두: 주님과 .....

선 도: 우리는 우리 자식만 생각했지 다른 아이들, 특히 불쌍하고, 고통받고, 가난한 어린이들을 외면하고, 모른체 하고, 돌보지도 않았으며 관심을 기울이지도 못하였으니

모 두: 주님과 모든 형제들은 나를 용서 하소서.

선 도: 우리는 불우한 여러 많은 어린이들, 정신박약아, 지체부자유아, 고아, 기아, 부랑아 나환자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베풀지 못했사오니

모 두: 주님과 .....

선 도: 우리는 고통받는 가난한 농민들, 청소년 근로자들, 가난한 판잣집의 우리 형제들에게 무관심하였사오니

모 두 : 주님과 .....

선 도 : 우리는 병고로 고통받는 모든이들에게 사랑의 위로나,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였  
사오니

모 두 : 주님과 .....

선 도 : 우리는 모두가 이기심에 사로잡혀 나만 잘 살겠다고 발버둥쳤지 이웃의 형제들을 외  
면하였사오니

모 두 : 주님과 .....

선 도 : 우리는 물질적인 부만 생각하였지 영신적인 부를 쌓는다는 소홀하였사오니

모 두 : 주님과 .....

선 도 : 우리는 진리와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헌신하는데 비겁하였사오니

모 두 : 주님과 .....

선 도 : 우리는 모든 이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데 소홀하였사오니

모 두 : 주님과 .....

선 도 : 아버지 우리의 잘못은 이와에도 많고, 우리의 허물은 더욱 많으며 하느님 아버지 뿐  
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용서를 청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청하는  
모든이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모든 이들도 우리가 이제 모두 용서하오니, 우리를 어여뵈  
보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시며 아버님의 평화와 위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십  
시오. 이제부터 새사람이 되어 아버님과 모든 이들을 위하여 살고자 결심하오니 필요한 은총을  
주시기를 당신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모 두 : 아멘.

노 래 : 성가 23 나는 굳이 믿사오리 2절

사 제 : 이제 인자하신 하느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주 예수께서 친히 가  
르쳐 주신 기도를 진심으로 바칩니다.

모 두 : 하늘에 계신..... 아멘.

## 평 화 의 인 사

사 제 :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모두 하느님의 평화를 옆에계신 형  
제들과 함께 나누는 뜻으로 악수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제는 먼저 신자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신자들끼리 평화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준다)

## 마 지 막 강 복

사 제 :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 모두에게 나누어 드리는 뜻으로 강복을 드리겠습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신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내리시고 여러분을 지키시며 당신  
얼을 여러분 위에 비추시고 은총과 평화를 베푸소서.

모 두 : 아멘.